

중국경제현안

브리핑

제02-21호 / 3월 1일

經貿委 主任 기자회견, 國有企業 개혁실적 평가

1. 개요

- ☐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리룽룽(李榮融) 주임이 全人代 회의중인 3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, 작년도 국유기업 개혁실적과 금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.
- 리 주임은 작년도 국유기업의 이윤 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으나, 이는 국유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며, 실질적인 이윤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주장함.
- 또한 금년도 국유기업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실업자의 재취업 문제와 실업자 보호대책을 지적함.

2.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

- ☐ 국유주식제 기업의 이윤 증가
- 공식통계에 따르면 작년도 국유주식제 기업의 이윤이 전년에 비해 소폭(62억 원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이는 구조조정 자금이 일시에 지출되었기 때문이며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은 아님.

- o 예를 들어 중국석유공사, 중국석유화학공사 등은 지난 1년간 60만 명을 정리해고하면서 퇴직금 등으로 410억 원을 지불하였으며, 석탄광산업체들도 안전시설 확충에 30억 원을 사용하였음. 이러한 지출금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윤은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.
- 1998~2000년 국유 및 국유주식제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2배 증가하였으며, 기업이윤의 50%, 세수의 60%를 국유 및 국유주식제 기업이 차지하고 있음.

□ 국유기업 구조조정 실적

-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형 국유기업과 소형 탄광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 하였음.
- o 지난 한해 동안 460개의 국유기업을 파산시키고, 70만 명의 근로자를 해고했으며, 1만 개에 달하는 소규모 탄광을 폐쇄
- o 반면, 회생가능성 있는 160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경영 정상화를 유도

□ 실업자 증가와 정부 대책

-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으로 2,550만 명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하였는데, 현재 이중 약 500만 명이 실업자로 남아 있는 상태인바, 금년도 중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노동수요를 창출할 방침임.
- o 또한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고 있는바, 금년에는 기초생활비와 노후 생활보장기금 등을 전년에 비해 28% 증액키로 함.

□ 금년도 국유기업 개혁 방향

- 중국정부는 ▲공평한 경쟁 환경 제공, ▲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지속적인 퇴출, ▲기업내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, ▲농촌지역 사회보장체제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.

(***)